

남가주 교협, 제41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11월15일 총현선교 교회... 교협 40년사 발간 작업 병행

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의 회(회장 지용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 총현선교 교회(민종기 목사)에서 제 41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남가주 교협은 정기총회에 앞서 남가주 교협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을 받는다. 회장, 수석부회장 자격은 목사 안수 경력 10년 이상이며 남가주에서의 목회 경력이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여야 한다.

후보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이력서, 교단 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 교회주보, 발전기금 등이다. 발전기금은 회장 5천불, 수석 부회장 3천불, 부회장 천불이며, 제출 서류는 11월 3일 오후 5시까지 남가주 교협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남가주 교협은 11월 4일 오후 2시 교협 사무실에서 교단 및 지역연합회 공천위원회 선정, 8일 오전 11시 공천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남가주 교

협 40대 회장 지용덕 목사는 “이번에는 41차 정기총회 외에도 교협 40주년 기념사를 제작할 것”이라며 “교계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사진을 소장한 이들과 교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가주 교협 문의: 323-404-3147)

한편,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정기총회는 12월 경 개최될 예정이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오는 제 44차 정기총회를 11월 1일(월) 오전 10시,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개최한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격은 목사 안수 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이며,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10월 25일(월) 오후12시까지 남가주한인목사회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381-9490)

샌피난도밸리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회장 이정현 목사)는 1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은혜와평강교회(유상수 목사)에서 정기월례회 및 세미나를 가지며, 12월 7일 정기총회를 세계비전교회(김재연 목사)에서 개최한다. (지재일 기자)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서문준, 이하 연합회) 주최 제30회 교회연합회 성가합창제가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수정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성가합창제에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침반교회, 늘푸른선교교회, 함께하는교회, 가나안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동부사랑의교회, 글로벌선교교회 등 15개 팀이 참가해 은혜로운 성가곡을 연주했다. 합창제에서는 각 교회 성가대의 연주 이후 마지막 시간, 모든 참가팀이 한 무대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해 성전 가득히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했다. (지재일 기자)

미국에서 가장 선교가 시급한 지역은 어디?

미국에서 가장 선교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일까? 바나그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메인주), 포틀랜드(오레곤주), 보스턴, 새크라멘토, 시애틀 순으로 나타났다. 이 도시들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의 비율도 타 도시에 비해 높다. 한편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남부 지역이 지배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것은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지역도 전체 성인의 4명 중 3명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즉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도시 중 68%-76%에 이르는 성인들이 자신을 기독교인

차이를 발견했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견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루지애나주 슈리브포트 지역 거주자들의 4분의 3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샌프란시

스코와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4분의 1을 약간 넘는 수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소위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남부지역 거주자들과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도에 관해서는 앨라배마주 버밍햄(64%), 노스캐롤라이나 샬롯(54%) 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거주자들이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였다. 반면 보스턴과 프리비던스 지역 인구 중에는 14%-17% 정도의 거주자만이 복음전파 필요성에 대해 긍정했다.

복음화율 낮은 지역도 기독교인 비율 여전히 높아

한편 주일예배 출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주자의 67%가 출석하는 버밍햄, 62% 루이지애나 로지(Rouge), 62% 솔트레이크, 60% 알라배마 헌츠빌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4만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펼친 결과로 약 7년의 조사기간이 소요됐다. (권나라 기자)

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했던 데이빗 키나넬 회장(바나그롭)은 11일(월) “이번 조사는 미국 기독교의 높은 회복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바나그롭은 특정한 문제에 관한 신념을 묻는 질문에서 커다란

전도에 관해서는 앨라배마주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4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일시 2010년 11월 1일(월) 오전 10:00
장소 풍성한 교회 (박효우목사 사무)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연락처 (213)381-9490 / (213)503-3355
등록비 \$10(필수)

제출서류 입후보자들은 제출 서류를 2010년 10월 25일 12:00pm까지 남가주한인목사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주소 :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문의전화 : (213)381-9490 / (818)337-8280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추천및 신청

- ◆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자격
 - 1) 목사안수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5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 2) 후보자 본 회 발전기금을 총무에게 Cashier's Check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칙 3장 8조)
-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교단 소속 증명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최종 학력 증명서
 - 5) 상회가 발행하는 현 교회 시무확인서 6) 30인 이상 회원추천인 명단
 - 7) 금월 후보 8) 발전기금 각 1통씩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이정현목사 ◎총무: 김원락목사

팝페라 가수 정세훈과 함께 하는 선교음악회



미주기아대책 임원들과 미주기아대책을 후원하고 있는 영신건강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미주기아대책, 아프리카 부룬디 어린이들 지원 예정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 미주기아대책 남가주 지회장 김재연 목사)는 굶주린 아프리카 부룬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팝페라 가수 카스트라토 정세훈 초청 선교 음악회를 개최한

다.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인 부룬디의 국경지역 키룬도의 어린이들의 전인적인 개발을 위해 복음과 음식을 전달하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Child Development Program을 지원하는 자선 음악회다. 12일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승호 목사(미주기아대책 선교국장)는 "이번 선교음악회를 위해 정세훈 씨가 개런티 없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음악회를 위한 티켓판매나 후원이 없이 예배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러진 헌금으로 부룬디 선교비를 마련한다.

정승호 목사는 "예배 후 진행되는 어린이결연행사를 통해 한 달 \$30로 아프리카 부룬디 키룬도 지역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개발 프로그램에 많은 후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목사는 "전세계 약20억 굶주림에 고통 받는 5세미만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훈 씨는 2004년 독집앨범 'Comfort(편음)'을 발매해 클래식&크로스오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2005년 뉴욕 카루소 재단이 수여하는 세계를 위한 천사의 목소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정승호 목사 703-473-4696

(지재일 기자)

피터강, 이상명 박사 출판감사 예배 드려

'치유되는 가장 살아나는 교회(출판출판사)'의 피터 강 박사, '구원의 우주적 드라마: 인류학적, 우주론적 전망에서 바라본 바울서신 연구(Mohr Siebeck)'의 이상명 박사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9일(토) 풀러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1부 감사예배와 2부 저서소개 및 서평의 시간을 가진 이날 피터 강 박사는 "치유와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며 쓴 책"이라고 말했다.

책에 대해 이광길 박사(풀

러신학대)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토박이를 다뤘고, 사역경험을 토대로 다뤘으며, 사역의 정당성을 세워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자신의 학위논문을 개정하여 독일(튀빙겐 소재)의 권위 있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낸 이상명 박사는 "공부와 연구, 가르침으로 교회와 학계를 섬기기 위하여 그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서를 평한 이덕주 교수(클레어몬트대학)는 "구원을 우주적 드라마 혹은 내러티브적(narrative) 전개가 신선하다"며 "특히 바울의 서신을 로마의 상황, 시대적 사상과 비교함으로써 바울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고 말했다.

(박삼기 기자)



피터 강 이상명 박사의 출판기념예배가 9일 드러졌다.

이민목회자 위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주강사 소강석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

한기총 언론출판위원회 · 남가주 교협 · 새에덴교회 주최

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와 남가주 교협이 한국에서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를 초청해 생명나무 목회의 비결을

듣는 '미국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는 개척교회뿐 아니라 중

교회의 목회 전략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강사는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목사(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이며

대형교회에서도 교회의 생명력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민 목회 노하우가 전해질 예정이며, 2009년 한국에서는 3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각

개회예배에는 남가주 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가, 폐회예배에는 한기총 회장 이광선 목사가 설교를 전할 예정이다.

이민목회자 위

론출판위원회(회장 이형규 장

로), 남가주 교협, 새에덴교회에서 주최하며, 크리스천뉴스 위크(발행인 조명환 목사)에서 주관한다. 세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조명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에서 후원한다.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27일(수)

장소: 더블트리호텔(전 매

리어트호텔) www.losangeles-snowwalk.doubletree.com

주소: 13111 Sycamore Drive, Norwalk, California, United States 90650

대상: 목회자, 사모, 신학생, 선교사

등록비: \$50(교재 및 1급 호텔 숙박 제공)

등록기간: 10월 20일(수)까지

등록신청: 크리스천뉴스위크 홈페이지 www.cnews-week.com 문의: 213-383-2345 / 714-493-9225

(지재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오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G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칼라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입 (퇴근 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치-머큐리 콘도 상가 2층
월서+웨스턴 코너

2대 청지기 송병주 목사 “성실함에 방법 더할 것”



송병주 목사

것 외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였고 제겐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담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사역이 부담이라기보다 그분이 워낙 좋은 분이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부담이죠.

-혹자가 노하우를 물어올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전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성실함과 그것에 공교한 손을 더하는 것입니다. Integrity 즉 마음의 성실함과, skill 방법론입니다. 지난 첫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큰 대하에 배 띄우고 고동소리도 크게 내보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종이배 띄우라는 응답을 주셨다구요. 물에 빠



19주년 선한청지기교회 '아름다운' 세대교체

로 선한청지기교회의 리더십교체는 한인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긴 시간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송광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1년간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한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셨던 분이십니다. 한 사람 안에서 우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송 목사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는 날까지도 성도들에게 저를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어요. 포커스를 자신에게 두지 않으셨죠.

-변화라는 것은 선행과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한청지기교회는 어떤 목회방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리더들과 많은 의논을 해 왔습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안에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저의 의견을 솔루선에 기초해 제시했습니다.

질 염려 없이 같이 물장구 칠 수 있는... 장차 큰 바다에 멋진 배를 띄울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예배사역과 제자훈련이 중요한 사역방향입니다.

-역시 함께 뜻을 모아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직자들, 리더들과 더불어 새벽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전임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들인 성도들과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말합니다. 직분자들이 이 제단을 제사장직 사명을 가지고 섬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기념일 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급적 많은 일을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아닌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대신 곳곳에 작은 당회들이 생겨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회원은 안수집사 5명과 회의한 것을 당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회에서 안건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일차 회의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당회의 절차는 훨씬 간소해지고 어느 한 사람에 독점되거나 집중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당회록은 일주일 안에 이메일을 통해 안수집사들까지 모두 전달됩니다. 안수집사들과 당회원이 회의했던 '작은 당회'의 결과를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 한분에 목자들 다섯 명씩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목자들을 위한 목장(조원지기)을 장로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편성 및 조원지기들도 모두 그들이 스스로 회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교회의 서리집사 임명권한이나 구제요청 등 모든 것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들이 사전 회의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둔 장로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학생 때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만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시이지만 솔루션에 기초한 귀납법적 제안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우리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착해 가는 것입니다. 전

부터 고민하고 기도하며 공부했던 것을 성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나아가 복음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날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과 인터넷 문화가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게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네트워크 되도록 하면 됩니다. 허브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할 때는 모두가 연결되도록 단순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잘 쓴다고 해서 그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의 문제이지요. 이러한 오늘날의 문화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집중화 되어있는 개념들을 분산시키는 일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기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조직의 소통방식이 공개와 참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에 임하셨습니다. 각오와 함께 성도들에게 한 말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송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상태이기에 보내드릴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순간 험난하다고 날 일도, 바쁘다고 바쁘다고 날 일도, 충분히 아쉬워하고 보내면서 또한 변화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게 포커스가 있다기보다 이 흐름을 함께 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오야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박상미 기자>

10월 10일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했다. 교회를 개척해 2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가 떠나고 1년간 동역하며 사역을 계승한 차세대 담임목사에게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뜻 깊은 창립 19주년에 즈음하여 송병주 목사를 만났다. 이민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세대교체에 대해 그 "전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이유밖에(?) 대지 못하는 송병주 목사는 그래서 더 부담이 된다고 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했고 그 영혼을 위해 성실함을 다했던 19년여의 사역에 이제 공교한 손길을 더하기 위해 두렵고도 신중한 행보를 시작한 차세대 담임목사의 이야기다.

-은퇴를 앞둔 송(광률)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교회를 떠나시고, 교회는 창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은?

하나의 언덕이 떠난 느낌입니다.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노하우를 물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전임 목사님이 좋은 분인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치과 •처방약 •한방침술
 •헬스클럽 멤버십 •해외여행
 응급시 혜택 •교통편 제공 등
☎ 무료상담 : 213.595.4700 (폴선)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1. 기초영어 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전액 보조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3. 어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5. 유학생 1-20 방학 (소셜번호, 워킹퍼미트 도와 드림)
 6. 졸업후 직업 추천 헤드룸 (유대계 ORT대학)
 *영주권자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 상담필수예약 >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윌셔+La Jolla, 버스 20번)

로즈힐 2010 캠페인 공경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노인 신분증 덕에 자식인 제가 더 마음이 놓여요!



로즈힐과 파바(PAVA)가 함께하는 무료 노인신분증 제작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로 노인 신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 ▶기간: 2010년 10월 4일(월)~10월 15일(금)
-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 ▶방법: 접수처에 오셔서 신청자의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긴급시 연락처와 주치의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사진 1매 지참)

- ▶신청장소:
 - LA / 코리아타운 플라자 (928 S. Western Ave, 2층)
 - OC / 한남체인 (5301 Beach Bl., Buena Park)
- ▶신청문의: 213-385-3303

▶후원: PAVA는 재미 한인 자원 봉사자들로 환경 및 공익을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새벽강단 15] 주님의영광교회 새벽예배

구약의 성취 예수님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 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주님의영광교회 새벽예배에서 신승훈 목사는 "믿음의 열조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그들 모두가 합

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습을 모두 다 합하면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백성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 의미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깊이 보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의 본문이 어렵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의영광교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며,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4절 예수님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스테반이나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한 복

음 전파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승리입니다. 때로 열심히 헌신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지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5~6절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여 본문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7~8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어진 구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본문 9~10절, 인생을 살다보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샘물 근원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11~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49: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49:12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 49: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박상미 기자>



신승훈 목사



사랑 나눔으로 이웃 섬겨요~

나성영락교회 2010 제4회 나눔 축제 개최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2010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 각 목양별로 준비한 아

동복, 가방, 남녀 의류, 잡화, 액세서리, 각종 음식 등 다양한 품목과 신선한 과일과 곡류 등도 판매됐다. 전교인과 지역사회가 함

께 참여하는 대규모 바자회인 나눔 축제 수익금은 캘리포니아주 교육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LA 통합교육구(LAUSD) 산하 3가, 윌튼 플레이스, 코헨가, 찰스 H 김 초등학교들과 베렌도, 존 버로우 중학교 등 총 10개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에 전달된다.

<지재일 기자>

송정미와 함께하는 2010 밀알의 밤 성향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사역자 송정미와 함께하는 2010 밀알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6일 ANC은누리교회(유진소 목사), 9일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10일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열린 이번 밀알의 밤에는 시각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 씨와 이지선 씨도 함께 초청돼 은혜로운 연주와 간증을 전했다. 송정미 씨는 '오직 주만이'를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했을 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라고 간증을 전한 후 찬양을 드렸다. 이번 장학금은 밀알장애인 뿐



아니라 필리핀, 몽골, 중국 등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계획이다.

<지재일 기자>

2011년 신년기획 목회 세미나 18일부터 개최



선우권 목사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서남부 지방회(회장 김일권 목사)는 2011년 신년기획목회 세미나를 오는 10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진행한다.

선우권 목사(블레싱데이 시스템 대표, 한국 수지제자교회 담임)를 주강사로 초청해 2011 신

년기획 목회세미나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년도 행사 기획하기, 비전 목회, 테마 목회, 치유 목회 비결, 신년도 영성 설교의 방향, 원어 설교와 성구로 이어가는 설교, 블레싱데이 전도주일 강의, 찬양과 기도회 인도법 등을 강의한다. 등록은 선착순 100명.

등록 문의: 심상은 목사 714-722-4805, jepe03@yahoo.com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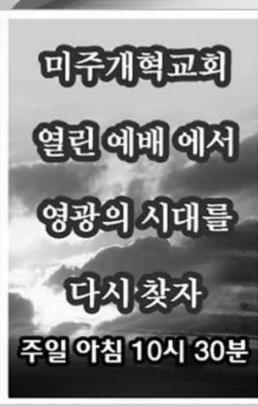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문인으로 가는 길, 미주개혁 대학

문학수업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문예창작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주개혁교회
열린 예배에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찾자
주일 아침 10시 30분

시인, 소설, 수필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절차를 밟아 문학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개혁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 수업을 받으십시오.
학위와 등단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외 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요한 목사가 강의 및 개인 지도를 합니다.

시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은 시인이었다.
다윗은 천수를 누리고 은혜가운데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은 "문학으로의 등단이다"



미주개혁 신학대학교
The Reformed University

우편주소 :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학교주소 :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
Toll Free: 1-800-281-2123 /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총장 신학박사 : 박요한 (Rev. John Park Ph.D)

“美 흑인 교인들, 선교 주체에서 제외되고 있다”



리처드 콜먼(선교사협회 선교동원 디렉터) ©크리스천포스트(CP)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32세의 리처드 콜먼은 19살 때부터 여러 선교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미국 내 흑인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 선교사

협회(Mission Society)에서 선교 동원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콜먼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흑인 교인들이 해외 선교 주체에서 제외되어 온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가 인용한 2007년 아프리카계 미국

인 선교 동원 선언문(2007 African American Missions Mobilization Manifesto)에 따르면 흑인 교인들은 미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 총 수(118,600명) 가운데 1% 이하만을 차지했다. 콜먼은 그러나 굳이 이같은 통

계치를 보지 않아도 선교 현장에서 흑인 교인들의 부재를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콜먼은 오렐로버츠대학교 재학 당시인 19세 때 처음으로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났고, 당시 팀원들 2백 명 가운데 흑인 교인은 극소수였다. “현지인들은 내게 ‘흑인들은 어디 있나요? 왜 그

달리만을 선교를 위해 사용했고, 전미침례교회의(MBC)는 1년에 각 교인이 40센트만을 선교를 목적으로 헌금했다. 이는 20여 년 전의 통계지만 콜먼은 AME의 현재 해외 파송 선교사 수가 10명에 불과한 것을 들며, “선교에의 열정 부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다른 흑인 교단들의 상황도 크게 개

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해외의 사람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흑인 인권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흑인 교회 역사를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해외 선교에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파송 선교사 중 1% 이하... 투자 빈약과 우선순위 전도 때문

들은 오지 않죠’라고 묻곤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어졌다. 학위를 마치고 한 흑인교회 선교 디렉터로 활동할 당시에도 2만5천 명 가량의 교인 수 가운데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는 3명에 불과했고, 매년 20명 가량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협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선교훈련에도 흑인 교인들의 참여율은 극도로 낮다고 그는 밝힌다.

그러나 이같은 선교에 대한 낮은 투자는 교단의 재정 부족보다는 근본적으로 흑인 교회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콜먼은 밝힌다. 선교가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흑인 커뮤니티가 요구하고 있는 많은 필요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쉽게 생각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하는 이유로 교회로 도움을 구하려 오는 사람들의 수만 생각해 봐도 이 문제는 분명해진다. 교회들은 이들에게 소액의 돈을 제공하거나 물건들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바로 눈 앞에 있는 형제들이 어

콜먼은 “바로 이처럼 흑인 교회들이 처해 왔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선교에서 멀어진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흑인 교회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권리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는 “이제야말로 우리의 지경을 우리만의 커뮤니티 밖으로 넓힐 때”라고 희망했다. 또한 인권 투쟁의 역사를 승리로 일구어 낸 흑인 교회의 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세계 모든 이들이 흑인 교회의 역사를 들어 왔다. 이는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손현정 기자)

“소수민족 재소자들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교도소 선교단체 SEA MISSION(대표 김갈렘 선교사)이 소수민족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 보급에 미국 한인 교회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캐나다 정부는 교도소에 비치할 성경구입 비용

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나 성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재소자들을 위한 성경 마련은 더욱 어렵다. SEA MISSION은 캐나다의 소수민족 교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성경을 기증받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알려진 90여개

언어로 된 성경 300권 정도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목표치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50여개의 소수민족 언어로 된 성경은 한인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SEA MISSION은 25명의 한인 사역자 및 봉사자들과 5명의 타민족 사역자들이 활동하

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1월 시작된 이래 2008년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에 정식 등록되었고, 올해 초 캐나다 연방정부에도 등록된 선교단체이다.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직접 성경을 기증하거나 (선교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아래는 김갈렘 선교사가 전한 사례)

“2007년 하나님의 은혜로 800권의 성경을 온타리오의 교도소에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곳으로 이송되더라도 한글성경을 구할 수 있게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운전하면서 서부지역의 교도소마다 전달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선교회 일동 4명은 성경

책과 찬송가가 들어있는 15개의 박스를 미니밴 싣고 서부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재소자를 30명밖에 수용하지 않는 Stratford라는 Community Jail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도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코디네이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전 한국인 재소자 1명이 들어왔는데 Korean Bible 을 노래하면서 달라고 했답니다. 30명밖에 수용하지 않는 곳이라 교도소 담당 목사인 채플린도 없는 상황에

서 그 코디네이션이 무척 난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저 한 영혼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외에는 우리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전달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의: 1-647-218-9499 (SEA MISSION 김갈렘 선교사)
홈페이지: www.seaprison-mission.org
(박상미 기자)

SEA MISSION, 소수민족 언어 성경 보급위해 도움 호소

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그나마 현지 단체들이 기부한 성경은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 성경에 불과하다. 미국처럼 캐나다 역시 200여개에 달하는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수민족(50여개)은 그들

언어성경 3만여권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한인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SEA MISSION은 수집 영역을 좀 더 넓혀 캐나다를 포함, 미국의 120개 소수민족교회를 직접 방문했으며 그 결과 38개



SEA MISSION 대표 김갈렘 선교사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

금돼지 213-908-0854
축강환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세+월탄)

데이비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C Davis)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Qualification):

- ▶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고 캠퍼스와 이민 목회 사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수 있으신 분
- ▶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① 이력서(사진포함)
- ②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 ③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④ 추천서 3부
- ⑤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제출처 :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청빙위원회)
603 L St. Davis, CA 95616
Tel: (916) 717-0769 청빙위원
e-mail: blessedare@gmail.com
제출기한 (Due date): 2010년 10월 30일

남가주 최고의 정규 4년제 종합대학 월드 크리스찬 대학교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BPPE 승인
SEVIS 승인
I-20 자체발행
ABHE 가입



예능대학, 선교대학, 신학대학
탐정대학, 경찰/경호대학, 언론정보대학
World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방문, 상용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

ESL, TOEFL

통신학부 **수시입학** **편입생 환영**

Phone: [323]734.0227, [323] 734.4599, [213] 725.300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벨뷰사랑의교회 KAPC 증경총회장 김상덕 목사 초청 가을 부흥성회 개최

“인생의 저녁을 걷고 계십니까?”

벨뷰사랑의교회(담임 조영훈 목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증경총회장인 김상덕 목사(남가주 북음장로교회)를 강사로 가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김상덕牧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증거했다.

김상덕牧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영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구약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라며,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믿음 생활은 단순히 성



벨뷰사랑의교회 가을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남가주 북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 ©Bf-anKrn

경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성경 지식만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경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우리의 판단과 노력으로 이뤄진 것 같은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는 생명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며, 음란과 정욕에 빠진 삶을 살다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망의 생각은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생각을 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잘 대면하게 됩니다.

생명의 생각이란 곧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세상의 잡다한 근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김 목사는 “마음이 부정함이 있는 사람에게 위도가 답이 될 수 없다”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깨끗함을 가져올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세상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신앙은 지식이 아닌 실제”라며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심을 인정하라”고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화합과 포용.. 임마누엘 장로교회 30년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 창립 30주년 찬양축제가 9일 본당에서 열렸다. 총 4부에 걸쳐 찬양축제가 진행됐으며, 오케스트라, G2M공연, 목장찬양단, 듀엣공연, 연합찬양대가 번갈아가며 공연했다.

이날 30주년 기념축제에 1대 목사인 립택권 목사, 2대 목사인 김진이 목사, 현재 담임목사인 손원배 목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창립초기부터 교회간 연

으로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로는 “지역사회를 돕는데 한인교회뿐 아니라 이웃교회인 미국 주빌리교회와 가나안타이완교회와 함께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청년으로 교회시작때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장로교회를 섬겨온 이동우 장로에게 이번 30주년 기념축제는 의미가 남달랐다.



4대 손원배 목사, 1대 립택권 목사, 2대 김진이 목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합을 통해 성장해온 임마누엘장로교회는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북가주에서 뉴비전교회와 더불어 대형교회가 됐다. 올해는 북가주 선교대회, 인터콥 선교캠프 등 북가주 대형집회에 장소와 인원, 재정적 후원을 통해 대형교회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30주년 축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손원배 목사와 장로들을 인터뷰했다.

손원배 목사는 “성도들이 사이좋게 화합하며 지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큰 힘이었던 것 같다. 30주년 이후로는 2세 교육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총 책임을 맡은 유택중 장로는 “초대 목회자들과 나가있던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30주년을 기념

이동우 장로는 “이민사회에서 분열되면 다시 만나기 힘들다. 그런면에서 임마누엘장로교회가 초기에 분열속에서 다시 화합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분열’이란 말은 잠시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는 것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채용석 장로는 “30년간 교인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주신 것 같다. 모두 성령의 역사 하심이다. 밖에서 상처를 당한 사람이 많이 치료받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갑 장로는 “30년간 사랑의 포용을 잘 해왔다.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용서하고 감싸주는 교회가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처음 오신 분들이 정착하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인터뷰

북미주 한인CBMC - 회장 권정장로 -

지난 7월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KCBMC, Korean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 place to Christ)는 제 9대 회장으로 권정 장로(시애틀 형제교회)를 추대했다. 일터 사역이 선교의 새로운 방안으로 부각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CBMC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권정 신임 회장을 만났다.

북미주 KCBMC는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미국과 캐나다 각 지역에 9개 연합회와 44개 지회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700여 명의 회원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일터를 사역지로 삼고 있다. 2012년에는 남미까지 영역을 확장

“지금은 기독교 실업인이 나서 세상에 영향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할 때”

해 80개 지회 2000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정 신임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CBMC가 태동했던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와 비슷한 시기로 평가하고 “지금은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성경적 경영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라며 일터 사역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하는 일문 일답

북미주와 캐나다 전역을 포괄하는 KCBMC의 9대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지금까지 수고하신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KCBMC의 발전, 영적 부흥을 위해 섬김의 사역을 다하겠습니다.”

북미주 KCBMC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로 삼고,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협력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가정의 회복과 사업장의 복음화를 실현하고 있다.”

북미주 KCBMC의 구성과 회원들의 모임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9개 지회와 44개의 지회,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기도회와 전도 초청 모임, 직장 방문, 양육과 제자훈련, 비전 스쿨, CEO 스쿨을 실시해 회원들을 일터 사역자로 육성하고 새로운 기독교 실업인들을 초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CBMC 조직으로는 93개국에 400여 지회에서 7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 권정 회장

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이뤄지나?

“전 세계는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다. 회원들은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구촌의 많은 실업인과 전문인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다. 기독교 실업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게 하려고 한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북미주, 중남미 등으로 나뉘져 있으며, 임기동안 중남미와 일본의 기독교실업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김브라이언 기자)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순회 일정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전 10:3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 10월 10일(주일) 오전 10:30 -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 25133 Ave, Tibbitts #1 San Clarita, CA 91355 · (661)964-8205
- 11월 21일(주일) 오전 1:30 -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72700 Fred Waring Dr, Palm Desrt, CA 92260 · (760)636-2675
- 11월 28일(주일) 오전 10:30 - 기쁨의 교회 · 3912 Wilshire Blvd, LA, CA 90010 · (213)351-9975
- 12월 12일(주일) 오전 11:00 - 천성 장로교회 · 6910 Potrero Ave, El Cerrito, CA 94530 · (510) 215-9800
- 12월 12일(주일) 오후 1:00 - 시온 장로교회 · 980 Stannage Ave Albany CA 94706 · (510) 912-1955
- 2011년 7월17,18(토,주일) 오후 7:30 - 오페라 CA 선교오페라단 · 1046 S. Victoria Ave, L.A, CA 90019 · (323)936-2567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6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이용자를 돕고 있습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6회 정기총회 열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36회 정기총회가 10월 12일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이었던 김원기 목사가 관례 대로 회장에 올랐으며 이종명 목사가 투표를 거쳐 부회장에 당선됐다. 이종명 목사는 총 96표 중 70표의 지지를 얻었다. 평신도 부회장은 손석완 장로가 맡게 됐다.



신임 회장 김원기 목사(좌)와 부회장 이종명 목사(우)

신임회장 김원기 목사는 “증경 회장님들이 30여 년 이상 너무 수고하셨다. 어떤 분은 교협 회장 하시다 병들기도 하시고 재산의 손실을 보기도 하시고 이단에 살해 협박도 받으셨다”며 “회장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교협이 새로운 전환기에 있는데 앞으로 EM, 조선족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제도적인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그 다음 교협은 교회들의 협의체이다.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려면 교단과 많은 좋은 연결이 되어 되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상정된 회칙 개정안 △제2장(회원) 4조(자격)에 4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한다 △제3장 10조(특별위원회) 2항, 청소년 지도 위원회: 교협 산하인 뉴욕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장(자문위원회) 제 13조(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 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다만 회원 자격에 대한 제2장 4조 내용은 특별위원회 대신 ‘관련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노기송 목사, 김명옥 목사가 선출됐다.

교협은 제36회기 예산 42만불 중 416,172.76불의 수입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각종 지출을 제외한

28,511.42불을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감사 김명옥 목사는 “지난 회기 314개 교회 중 120개 교회로부터만 회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회비 납부 교회를 배가하지는 못해서 노력했지만 30개 교회만 늘어났을 뿐”이라며 각 교회들의 회비 협조를 당부했다. 교협 35년사 책자는 2007년 8월 15일에 작업을 시작해 2009년 10월 10일에 발간됐다. 그동안 교협은 광고료로 35,580불의 광고 수입을 얻었고 작업비로 35,996.20불을 지출했다. 차액 416.20불은 교협에서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기간 중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 감사 김삼환 목사가 지원한 2만불에 대한 내역도 보고했다. 감사는 지원금 중 1백불씩 71명에게 7,100불을 지급했으며 당일 식대 등을 제외한 잔액은 ‘사랑과 위로의 밤’ 경비로 사용하고 교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PGM 세계전문인선교회, 대세는 ‘평신도 선교사’

이상 끝까지로의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과제다. 과업 완수를 위해 직업과 사역 모두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나서는 때다. 12년 전부터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PGM세계전문인선교회(대표 호성기 목사)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선교적 도전과 사명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마련됐다. 대회가 끝나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펜실베이니아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만을 위한 대회가 별도로 열린다. 호성기 목사는 “뉴욕과 뉴저지 평신도 선교사들이 도전 받고 PGM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선교사들이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며, 목회자들이 도전 받고 평신도 선교

말을 전했다.

대회를 여는 강의는 김남수 목사가 인도했다. 첫 강의인 만큼 기독교 선교가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목사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안에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략과 전술 없이 집행할 작전만 갖고 있어선 안 된다. 교회가 전략과 전술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수 목사는 선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복음과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말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로 본질을 되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과 13일에는 정인수 목사, 임현수 목사, 유승관 목사가 인도하는 선교 집회, 세미나와 함께 선교 현장에서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신임, 허입선 교사 18팀을 파송했다.

〈윤주이 기자〉

PGM선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선교적 도전과 사명 회복’ 주제로 선교대회 개최

선교 대회를 시작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 대회는 5년 전 첫 대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대회에는 20여 개국 50여명의 선교사는 물론 PGM 이사회와 평신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3백여 명이 등록했다. 김남수, 양춘길, 호성기 목사 등의 주강의와 함께 총 32개의 선택

사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이사장 양춘길 목사는 “PGM이 시작할 때만해도 선교사가 77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20가정이 된 것”이라며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선교사들이 재충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



첫날 집회 후 감사와 PGM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정한 성공을 준비하는 The Achiever Club



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성공을 통해 사회에 더 크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크리스천 청년·청소년 모임 The Achiever Club(회장 최인영, Jenny Choi)이 7일 모금 캠페인 및 프로페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뉴욕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The Achiever Club은 2003년 5명의 뉴욕서광교회(담임 최교선 목

사) 청년이 모여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 등의 주제를 정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고자 시작했다.

또한 멤버들은 프로페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비전과 장래희망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각 분야에 관해 프리젠테이션하며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각자 가진 목표를 더 공부하고 적용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한다.

The Achiever Club 회장 최인영 자매(NYU 졸업)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무너지

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현상을 보며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공부 잘하는 세상 친구들을 보며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커뮤니티와 세상을 만드는 성공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영 자매는 덧붙여 “성공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공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크리스천의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으

로 변했으면 해서 매주 3-4시간씩 모여 주제를 정해 대화한다. 비록 그의견이 틀렸다 해도 대화하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나눔 가운데 성경적인 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멤버들이 자기 생각을 뚜렷이 말할 수 있고, 각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있게,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The Achiever Club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뉴욕서광교회에서 모임이 진행된다. 문의: 516-965-5452

〈오상기 기자〉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로스엔젤레스 교역자협의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2198779
미연방정부 면세번호(Federal Tax I.D. Number)
#95-4822611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The Council Korean Churches in Los Angeles
회장 : 표세흥 목사,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 (213) 718-1512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0월 25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세 + 웹스터)

제7회 런던세계선교대회 폐막

‘하나님의 선교, 세계선교, 지역 활동’을 주제로 열린 제7회 런던 선교대회가 10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총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식을 가졌다. 20여개국의 유럽과 해외에서 참여한 4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

적인 성장을 가져온 한인들의 선교는 본질적인 선교적 소명의식과 중요성을 상실해 과거 서구식 식민주의적 선교의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교사는 물론 교회들은 스테판과 같은 복음의 열정과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성훈 선교사는 지역선교를 통한 디아스포라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옥스포드선교대학원 마원선원장과 런던바이블대학 최종상선교사는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역 유럽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회개혁추진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김성훈 선교사는 “다인종 다문화화 된 우리의 이웃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있다”며,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영적수준과 선교적 열정이 한인교회들보다 높아가고 있어 디아스포라교회들간의 연합을 통한 선교적 역할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런던선교대회 총무 김성래 선교사(CCC)는 선교대회 결의문을 통해 교회가 진정한 선교의 중심이라며, 특히 이민교회들이 다인종 디아스포라선교는 물론 2세들



런던선교대회에 참여한 주강사들과 해외선교사들. ©런던선교대회(LMC)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런던선교대회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유럽지역 청소년 2세들의 선교훈련을 위해, 우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워싱턴 디씨에 있는 평화나눔공동체(최상진목사) 선교훈련원에

보내기로 결의하고 기타 선교지도도 필요에 따라 보내기로 했다.

이에 최상진 목사는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인교회들과 타인종 디아스포라들이 2세들의 영성을 책임지고 선교적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럽과 북미

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현장선교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평화나눔공동체 선교훈련원을 통해 매년 500여 명의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들이 단기선교훈련을 받고 있다.

(조요한 기자)

기도로 이끌어 가는 여성사역, 치유 가운데 여성 리더 세워

맑은 물이 담긴 컵 속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보자. 잉크는 서서히 퍼져 결국에는 물의 색을 열게나마 변화시킬 것이다. 한 방울의 잉크... 비록 적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시작된 여성사역이 ‘한 방울의 잉크’처럼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 그 속도는 느리고 영향력 또한 적어 보이지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기에 주목된다.

올해 구성된 여성사역위원회(위원장 민경희 장로)는 2003년 태생된 어머니 기도모임으로부터 파생되고 새롭게 생겨난 여러 사역을 아우르고, 지금까지 사역 노하우를 정리해 여성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에 전달하며, 이민교회 여성사역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교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교회 내 여성들의 리더십은 여성선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부역과 친교 담당 봉사자들로 한정되며, 많은 잠재력을 갖춘 젊은 엄마들이 자녀양육과 불안정한 초기이민생활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에



지난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시작된 여성감성예배 모습.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연합장로교회 여성사역위원회에서는 기존 남성 중심의 리더십과 조화를 이루면서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여성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전 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영적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명해 보았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여성사역, 숨겨진 은사 발견하고 리더로

세워지는 열매 맺어
물루스로 예배당을 이전한 직후 평일 오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과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리더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자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시작된 모임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커지고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연약한 날갯짓 한번이... 여성사역을 통해 꿈꾸는 ‘나비효과’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기 때 문일까? 기도모임 시간에 아이가 조금 울어도, 쿠키를 나누는 중에 아이가 보채도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서들지 않는다.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들은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했던 내면의 갈등, 신체적 어려움, 남편과의 문제를 털어 놓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있다.

여성사역의 핵심은 ‘기도’, 여성사역의 영향은 ‘나비효과’
여성사역위원회 위원장 민경희 장로와 총무 진은경 집사는 여성사역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도’라고 했다. 어머니 기도모임에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든든하게 있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뛰어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사역에 앞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완성됩니다. 위원회 월례회를 할 때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늘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90%까지

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더 기도하게 되죠.(민경희 장로)”

“얼마 전 시작된 여성감성예배도 준비시간이 정말 촉박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위원회에서 논의된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좋았던 것은 의외로 흐지부지되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요. 위원회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성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진은경 집사)”

그렇다면 여성사역의 발전이 교회에 주는 영향은 어떤가요?
진 집사는 ‘나비효과’를 들어 설명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한번이 지구 건너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처럼, 여성사역은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작은 날갯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사역을 통해 치유 받은 여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

를 섬기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듯이 교회에서 여성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기는 일, 남편을 신앙으로 세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균형 잡힌 리더양성이 과제

민경희 장로에서 현재 여성사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아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서 빨리 자라고 싶어하죠. 아직 아기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잘 자라나도록 기도로 키워야(웃음)”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민 장로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 창녀, 낮은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듯이 여성사역은 여러가지 환경에 눌러 힘들어 하는 여성들을 일으켜 리더로 세우고, 결국엔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현희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을 (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욱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10:3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은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213)249-9191 / F.(213)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한국, 대만,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조찬기도회 연합' 조직키로

대만 건국 99주년, “은혜 넘치는 희년의 해”



장헌일 사무총장, 주신조 준비위원장, 김영진 초대회장, 왕건선 감찰원장.

제10회 대만 국가조찬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희년의 해, 대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9일 오전 타이베이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 등 해외 대표를 포함해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대만 건국 99주년을 기념하며 100년의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열어

가고자 준비한 기도회로 그 의미가 깊었다. 이날 마영구 대만 총통은 축사에서 “매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도전과 감동을 받는다”며 “국가의 정책을 입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 후인 쌍십절 국

경일 99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온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부 위원장인 진정길 장로의 환영사와 왕건선 감찰원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준비위원장인 주신조 목사는 설교에서 「역대하 7:14」, 「딤펴전 2:2」, 「누가 4:16-22」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은혜의 해가 되길 바라며 나라와 민족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 대만 국가건립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자”고 설교했다.

특별기도는 복음을 위해, 직장 선교를 위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도하고, 헤본리 찬양단의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2시간 동안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외국 대표 환영식에서

한·대만 국가조찬기도회 지도자 회의를 통해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조찬기도회 연합」을 조직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선교를 위해 3국의 국가조찬기도회를 중심으로 선교 협력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며, 양국 총괄은 장헌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과 사이몬 훙 대만 국가조찬기도회 집행위원장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측은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김영진 초대회장과 장헌일 사무총장, 대만측은 주신조 대회장과 왕건선 감찰원장, 사이몬 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기도회 다음날 대만 건국 99주년 경축행사에 한국 대표로 김영진 초대회장과 장헌일 사무총장은 마영구 총통을 예방하고 국민 자격으로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이대웅 기자)

종교인 1만명 참여하는 ‘범종교인 대회’ 열린다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기독교, 불교 등 121개 종단 및 교단 참여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 회장 박창달)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범종교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범종교인 대회에는 121개 종단 및 교단에서 종교지도자 및 종교인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장관 및 인사 총 500여 명 등도 참여할 것이라고 연맹은 덧붙였다.

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성공기원(기독교), 평화통일 염원(불교)을 위한 기도와 종교 5단체 대표와 연맹 박창달 회장 등이 ‘애국시민운동 실천 협약서’에 서명하는 행사 등이 마련된다.

박창달 회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종교를 믿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화해와 통합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며 “일부 정치 세력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적 현안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고 일부의 시각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번 대회를 마련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故 옥한흠 목사 추모집 ‘은혜의 발걸음’ 발간

“누룩과 같았던 분, 더 많은 이들에게 퍼지길”

고(故) 옥한흠 사랑의교회 원로목사의 추모집 ‘은혜의 발걸음’(국제제자훈련원) 출간 기념 감사예배가 12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유족인 김영순 사모와 장남 옥성호 씨,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 손인용 목사(덕수교회), 손봉호 박사, 김경원 목사(교경협 대표회장),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등이 참석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본문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를 제목으로 설교한 손인용 목사는 “옥목사님이 남기신 믿음이 무엇일



고(故) 옥한흠 사랑의교회 원로목사의 추모집 ‘은혜의 발걸음’(국제제자훈련원) 출간 기념 감사예배가 12일 저녁 7시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렸다. ©김진영 기자

까. 갈수록 크게 울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열었다.

손 목사는 “옥 목사님께서 추

구하셨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옥 목사님의 믿음이었다”며 “비록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

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목사는 “이 책은 옥 목사님께 영향 받은 많은 이들이 그분의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정리해 옥 목사님께 드리는 책”이

라며 “이 책 속의 내용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축사한 손봉호 박사는 “옥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유산이 한국 사회는 물론 외국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를 떠올리며 생 각한 것이 누룩이었다. 옥 목사님은 참 순수한 천국의 누룩이었다. 이 누룩이 이 땅에 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인 방지일 목사도 “만약 옥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옥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옥성호 씨와 함께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김영순 사모는 “그 동안 옥 목사님의 많은 책이 출간됐지만 그 중에서도 ‘평신도를 깨운다’에 가장 애착이 간다”며 “사랑의교회를 건축할 당시

수련원을 오르내리며 이 책을 쓰신 것을 기억한다. 당시 이 책을 통해 제자훈련이 자리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쓰셔서 더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제2, 제3의 옥한흠이 나와 훌륭한 책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간인사를 위해 강단에 오른 오정현 목사는 “옥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며 “목사님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오늘 출간 기념식이 그 첫 사업이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짧게 인사했다.

책의 제목인 ‘은혜의 발걸음’은 고인의 호인 은보(恩步)를 뜻하는 것으로 책에는 그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64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고인을 위한 기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OPEN 7 DAYS A WEEK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제40차 정기총회 개회와 함께 진행



개회예배에 앞서 루터회관 앞에서 말틴 루터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을 마친 후 루터 동상을 배경으로 엄현섭 총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루터회, 루터 동상 제막식 및 루터회관 봉헌식

제40차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엄현섭 목사) 정기총회가 10일 오후 서울 신전동 루터회관에서 개회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루터회관 봉헌예배 및 말틴 루터 동상 제막식과 함께 열렸으며 전국에서 1천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배에는 전세계 루터교회 관계자들과 NCKK 전병호 회장, CBS 이재천 사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신전동 루터회관은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잡설역 인근에 기존 지상 5층 규모의 루터회관을 재건축해 건축했다.

루터교 전통의 예전에 따라 드리진 예배에서는 엄현섭 총회장이 '서로 짐을 져 주시다(시 127:1-5, 마 20:20-28, 갈 6:1-10)'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 총회장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가 40년을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며 "한국선교 13년만인 지난 1971년 제1회 총회를 연 기독교한국루터회는 그때보다 교회 수는 10배, 목회자 수는 11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엄 총회장은 "갈라디아서는 '의인(義認)에서 끝나지 않고 의인이 된 자들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의인과 성화(聖化)는 성경의 중요한 두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루터교회는 지난 40년간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치중해왔는데, 이제 루터회관 건립으로 육체적인 요구도 들어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루터회관에 의지하려 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루터회관 봉헌식이 이어졌다. 엄 총회장은 "이 자리에 있던 5층 규모의 총회회관을 처음에 12층으로 지으려 했는데, 그랬다면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2008년 일어난 금융위기 직전 용자를 받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낮아져 이자 1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봉헌식에서는 콜보 목사(미국LCMS루터교 대표), 전병호 목사(NCKK 회장), 쿠메이 유타카 목사(일본루터

교 총회장), 도로우 목사(제1대 미국루터교 선교사, 루터대 명예총장) 등이 축사했다. 또 명승건축(설계), KCC건설(시공), 맥이앤씨(감리), 손인문 KCC 소장, 이원훈 감리단장, 임경순 현장감독, 한범 실행위원과견감독, 김한근 자문위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예배에 앞서 말틴 루터 동상 및 부활 십자가상 제막식이 루터회관 앞 마당에서 열렸다.

엄현섭 총회장은 "많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든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그간 한국 루터교회가 한국교회의 성경 보급과 연구에 앞장섰기(베델성서연구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정기총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조동루터교회에서 이틀간 회무처리에 돌입한다.

이와 별도로 11일 오전 11시에는 쿠메이 유타카 총회장의 강연, 12일 오후 3시 30분에는 비헤른 봉사상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이대웅 기자)

개척 7년만에 새성전 건축... '셀교회의힘'

리더십 50인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정체 혹은 후퇴하고 있는 성장세, 자꾸만 들려오는 부정적 소식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 팽배 등 총체적 난국은 미래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저마다의 영성과 철학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특별히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는 리더십 50인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교회의 성장은 점점

박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2막으로 구분한다면 1막은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절이다. 7년 전 인생 2막을 열었으니 그의 삶 대부분이 1막이었던 셈이다. 그의 첫 무대는 왜 막을 내렸을까.

"그저 주님을 알고만 있었을 뿐 그 분과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사로, 또 여러 직분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정작 그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한 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구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셀교회라는 그의 확신에서 교회는 출발했다.

그러나 주변의 선배 목회자들은 교회 이름에서 '셀'자를 뺐 것을 권유했다. 아직 한국교회에서 셀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그것이 한국적 상황에도 잘 맞지 않는다고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셀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확신은 성공적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

"단지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셀교회를 도입하면 실패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행돼야 해요. 이것 없이 친밀한 교제와 나눔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고 서로 상처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셀교회의 강점이 되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만큼 서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는데, 그저 프로그램의 하나로 셀교회를 추구하면 이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는 점점 성장해갔다. 몇 개의 가정이 전부였던 교인 수는 개척 후 몇 달이 지나자 40여명으로 불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청년이었다. 이는 박 목사가 교사 시절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박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운 학생들이 졸업 후 박 목사를 다시 찾은 것이다. 20평 남짓의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후 100여평의 건물로 옮겨갔고, 최근 새 성전을 건축해 임당하기에 이르렀다.

"교회 모든 사역을 셀리더들이 결정하고, 교회는 공동의회와 제직회 대신 셀리더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짐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요. 보통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더욱 하나 되는 건강한 부흥을 이뤄가고 있죠. 저는 이것이 건강한 셀 중심의 목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마을셀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죠."

(김진영 기자)



셀 목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예수마을셀교회 담임 박영 목사.

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섰다. 드라마틱한 '개척 신화'도 옛말이 된지 오래다. 중·대형교회라는 소위 '주류'로의 편입은 목회 초년생들에게 하나의 '진입장벽'과도 같아졌다. 웬만한 사명감으론 임무를 내지 못하는, 오직 '진짜'만이 살아남는 세계가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다.

그래서 이 '진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동시에 도전을 던진다. 지난 2003년 교회를 개척해 3년 만에 자립에 성공하고 7년 만에 새성전을 건축, 부흥을 이끈 주인공이 있다.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 무엇보다 놀라운 건 250여 명의 청·장년 성도들 중 70%가 청년, 120명이 교회 비전에 평생을 바친 동역자들이라는 점이다. 그가 과연 '진짜'일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나, 가뭄에 내린 비가 '단비'이듯 조심스레 '진짜'라고 말해본다.

교사에서 목사로... 인생의 제 2막을 열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찾는 불쌍한 영혼들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곧 교사를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모임을 인도했지만 회의감도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모임도 차츰 활기를 잃어갔죠. 그러던 중 셀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셀그룹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을 기독교 사 모임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엄청난 회복과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모이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니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더군요."

"프로그램식으로 셀을 도입해선 안 된다"

결국 그는 이 때 함께한 교사가 가정들과 '예수마을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추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학생시절에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군대의 최고 사령관에게 칼을 수여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이미 군대에는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되어 나라에 배치되고 있는 시기였다.

위성으로 적국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세기에 칼

을 수여하는 모습이 무척 우스웠었다.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으면 모를까 미사일 한방이면 수백 킬로 떨어진 적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요즘에 무슨 칼이 필요하던 말인가?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이 최근의 영화 한편을 보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티스버그"라는 영화였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 장군들의 모습이였다. 부하들에게는 총과 대포를 주면서도 실상 자신들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긴 칼뿐이었다. 이들은 칼을 높이 쳐들고 부하들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향하여 나

아가라고 부하들에게 외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앞서 갔다.

총알이 날아오고 대포의 포탄이 터져도 절대로 칼을 내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적진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걸어

가는 것이었다. 이들은 부하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자신들의 장군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갈 수 있었다. 장군들이 뽑아든 칼은 적을 찌르기 위한 칼이 아니었다. 이 칼은 부하들을 향해 높이 쳐들 자기 자신들이었다.

이 칼이 내려가면 자신도 죽는 것이었다.

칼은 무기가 아니라 죽음에

굴하지 않는 지휘관의 희생과 생명이였다.

영화가 끝난 후에 한동안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다.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칼을

칼을 들어야 한다

높이 쳐든 자이다. 이 칼을 바라보고 주의 성도들은 따라 온다.

그러나 말씀의 칼이 내려오거나 칼을 집어넣은 채 뒤로 물러선다면 주의 성도들은 영락 없이 전쟁에 실패하는 패잔병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말씀의 칼을 내린 적은 없는가? 앞에서 퍼부어대는 세상의 총알과 대포 앞에 발걸음을 뒤로 한 적은 없는가?

소위 잘나가는 신세대 목회자들이 누리는 인기가 부러워

말씀을 세상에 타협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같은 들었지만 희생과 생명이 담기지 않은 칼을 든 것은 아닌가?

기독교인이라면 시대의 영

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단순히 자신의 꿈과 목표만을 위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시대를 주도할 수도 없다. 자신의 직업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려고 할 때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하고 싶다. "말씀의 칼을 빼어 들고..."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다.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고정할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주님은 가야할 곳과 이루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은 시대를 미리 볼 수 있는 혜안의 눈을 가지게 한다.

인터넷과 위성통신의 시대에도 말씀은 여전히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말씀의 홍수는 영혼을 무력하게 만든다.

우리의 목표를 뿌연 흙탕물로 덮어버리고 만다. 이제는 말씀의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칼이 필요한 시대이다.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말이 있지요? 착하게 이쁘게 살면 멋진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인 듯합니다.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라고 해서 남편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만 잘 만나야 하나요? 아내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은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말이 어떤 분이 이를 제기했습니다. 신데렐라가 아무 노력 없이 얼굴 예쁘고 착해서 인생 황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데렐라'의 뜻이 '먼지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정소하는 사람'이란 의미와 같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온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혼자 다했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시달림을 깨끗이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신데렐라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식구들을 미워했다면, 아무리 멋진 옷과 호박마차에 유리구두를 신었다 한들, 왕자의 마음을 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얼굴'의 뜻이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spirit)의 상태가 얼굴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아시지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압니다. '나 건드려만 바라. 가만 안 있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락없이 화난 얼굴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젊어서 탤런트처럼 잘생긴 남자가 계셨습니다. 그 젊어서 사진을 보

면, 지금으로 완전 '얼짱'입니다. 보통 미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인과 40년을 넘게 갈등하고 불화를 겪으면서 그 얼굴이 변하여서 지금은 광대뼈가 푹 튀어나오고, 눈썹 양쪽 끝이 위로 뻗어 있습니다. 잇몸은 다 드러나고, 이와 이사가 다 벌어져서 도대체 젊어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얼굴은 '얼짱'이 맞구나"생각했

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학대를 받고 신데렐라가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데렐라의 착한 성품과 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화 신데렐라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윤이 좋아서 팔자를 고치고, 복권당첨된 것처럼 인생역전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 성품, 자신의 인생을 지켜낸 결과가 바로 왕자와의 결혼이라는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같은 맥락에서 요셉이 제 아무리 꿈 해석이 능통하

고, 능력 있다 해도, 보디 발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분노에 가득한 범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총리가 가담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혼을 미움과 분노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영혼을 집어 삼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분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흥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나와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일 수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면 우리는 마침내 어느 순간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미움도 부흥합니다. 미워할수록 미움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맘에 안든 정도였는데, 계속 미움을 표현하고 생각하면 원수로까지 여겨지게 됩니다.

저를 서운하게 대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 마땅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일이 어쩌나 서운했던지, 저는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분

협담을 일삼았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집에 오더니, "한 번만 더 그분 협담하면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갈거야."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담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미움은 키우면 정말 커지는구나.' 미움은 무시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미움을 표현하면, 미움의 나무에 물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우리는 원수의 모습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면 그는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만 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얼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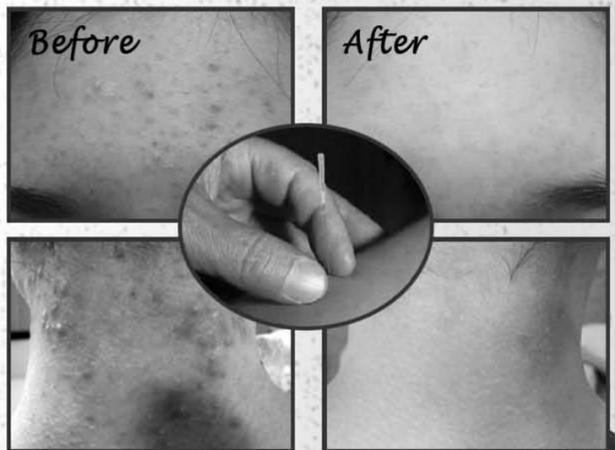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물 2층)



T.213-380-0853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렵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시범 경험 전문 치과외과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선택과 치주 치과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 잇몸 없게 하는 임플란트 | *악기 복원술 보철 전문의 | *악기 복원술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IV Injection) | 드림 없이 하는 임플란트 | 연방 치과대학 출신 보스턴 임플란트 보철 센터의 대표 교정 전문의

방사 조사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념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 *오픈기념 특별할인* |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외과 • 보철외과 • 신경치과 • 구강외과 | 보철외과: PPO, HMOA
치주치과 • TMJ (턱관절장애, 스물린) |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대위험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더링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음식)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 키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미역국 \$1.00 (1인당)
- 야채비빔밥 \$1.20 (1인당)
- 고기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할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임용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가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213-909-5518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Higher Calling 더높은 부르심!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피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미주 한인청년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제 3차

미주

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4)



대회일정 | 2010년 12월 20일(월) ~ 23일(목)

대회장소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1 차 | 11월 22일까지 \$150 (USD)

2 차 | 12월 6일까지 \$170 (USD)

마감 | 12월 13일까지 \$220 (USD)

등록방법 | www.gkym.org 에서 직접 신청 | Pay to order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문의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사무실(KCCC USA)
1636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 389. 5222 Fax : 213. 389. 5200
www.gkym.org E-mail : gkym2010@gmail.com



프로그램 | 전체 집회, 선택특강, 어울림축제, 선교박람회, Sports 축제, 결혼세미나, CCM, CCD 경연대회, 콘서트.....

- | | |
|--------------------------------------|-----------------------------------|
| 강사 Steve Douglass (국제CCC총재) | Luis Bush (기독교21세운동 대표) |
| Miles McPherson (The Rock Church) |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 |
|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 한철호 목사 (선교한국 상임대표) |
| 임현수 목사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 | 김동환 목사 (KCCC USA대표) |
| 최홍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
|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
|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 |

뮤지션 | Shane and Shane



주관 | GKYM 준비위원회 | KCCC 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주최 |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 남가주 목사회 | 샌디에고 교역자 협의회 | KOSTA | 남선협
플러선교 신학대학원 | KAYAC | HYM | CTS | CGN | KIMNET | JAMA | KCMUSA
미주복음방송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 투데이 | 크리스찬 뉴스워크 | 기독교일보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0월 25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가정, 혜택, 절약 상상초월

로컬/장거리/국제전화 아이토크비비 하나로!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10월 1일 ~ 10월 15일 가입자에 한함 **30일 환불보장**

비싼 집전화 기쁨료 이제 안녕~

Residential Economic Plan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수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기존 전화기-전화번호 이용가능!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유저간 통화의 자유를 누리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가임문의**

iTalkBB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www.Korea.iTalkBB.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월이용료 이외에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과 글로벌 플러스 플랜은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던 수신 총금액을 환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와 패밀리 알뜰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얻으세요!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을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명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IS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0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199/3YR 12K T.D.O \$2,399
O.A.C & PLUS TAX, LOYALTY INCENTIVE
STK 132410



2011 신형 제네시스

\$399/3YR 12K T.D.O \$2,999
O.A.C & PLUS TAX, LOYALTY OR COMP. INCENTIVE / STK 115602



2011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259/3YR 12K T.D.O \$2,699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STK 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159/2YR 12K T.D.O \$1,999
O.A.C & PLUS TAX, INCENTIVE
STK 093904



10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지니 안



한국어 상담
제니 킴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It's
one more for you.